

## 조이스와 실용주의

남 기 현

### I

“조이스와 실용주의”라는 제목은 사뭇 거리가 먼 요소들을 억지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또한 조이스의 철학적 성향을 논의한다는 것이 그의 문학의 다양한 면을 축소하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이스와 실용주의의 관계는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 아주 낮은 것도 아니다.<sup>1)</sup> 덧붙여 여기서 단순히 조이스의 철학적 성향이나 관심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이스의 예술에 대한 이론적 틀이 안고있는 실용주의적인 요소를 점검해 보고, 그것이 그의 역사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 진술된 너무나도 유명한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의 예술가론--자신의 손톱을 깎고 있는 무관심한 창조의 신--에 치우친 많은 비평적 접근들의 풍성함에 비해 레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이 대변하는 조이스 문학의 또 다른 미학적 축에 대한 논의는 빈곤하기 그지없다. 블룸의 예술가적 기질에 대한 일과성 언급은 많지만, 논의의 깊이는

---

1)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Gordon Tweedie, "Common Sense: James Joyce and the Pragmatic L. Bloom," *JJQ* 26 (Spring 1989), pp.351-66; Timothy Brennan, "Joyce and the Common People," *Boundary2* 14.1-2 (Fall 1985/Winter 1986), pp. 147-59; Kevin Dettmar, *The Illicit Joyce of Postmodernism: Reading against the Grain*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6).

결여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셸던 브리빅(Sheldon Brivic)이 “블룸을 둘러싼 아 이러니는 스티븐의 관점을 표현하고, 반면에 스티븐을 이해하려는 감성(pathos)은 블룸과 관계가 있다”고 한 것처럼, 스티븐과 블룸은 지속적으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이스의 문학을 스티븐의 미학적 틀로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Brivic 52). 스티븐 디덜러스가 대변하는 고전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예술론에 반하여 블룸이 나타내는 또 다른 미학적 축을 실용주의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특히 블룸의 미학적 틀에 관한 언급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는 일은 조이스 문학의 이해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조이스가 당시 전 유럽에서 박해의 대상인 유대인인 블룸을 식민국가의 예술가인 스티븐과 양립시킨 것은 블룸이 담아내는 미학적 축이 스티븐과 어느 정도 상반된다고 봐야한다. 물론 그 상반되는 힘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이 진정한 의미의 조이스의 미학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스티븐의 미학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블룸이 표현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에서 그 미학적 경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율리시즈』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아일랜드의 역사적 상황과 유대인의 역사현실과 그 인식을 살펴보고,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의 문제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역사적 담론들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실용주의에 대해서 조이스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가를 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태도는 주로 리처드 엘만(Richard Ellmann)이 전하는 스타니슬라우스 조이스(Stanislaus Joyce)의 증언에 많은 것을 의존해 왔고, 이로 인해 조이스의 동생이 갖고 있는 편견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나의 형의 실용주의에 대한 관심은 하찮은 것이었고, 하나의 철학유포에 관한 어떤 호기심 이상은 아니었다. . . . 그의 주장에 따르면, 능란한 회피를 통해서 철학적 어려운 점들을 피한 것이었다. 진실에 대한 상대성의 주장과 목적에 대한 효용성의 근거로 지식을 실용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형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의 원칙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의 성격에도 그렇다. . . . 트리에스티에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영국 백과사전보다 이태리 백과사전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흥미를 준 쓸모 없는 지식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W 135 note).

조이스의 동생 스타니슬라우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태도는 단순한 철학적 유평에 대한 호기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백과사전에 관한 언급은 오히려 조이스 특유의 아이러니한 태도가 나타난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 스타니슬라우스가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관심이 별로 크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실용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리의 원칙들에 위배”된다는 것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티븐의 미학적 축의 중심이 아리스토텔레스이기 때문에, 조이스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확대시켜 봄으로써 스타니슬라우스의 증언이 얼마나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켰는가를 보려고 한다. 우선 조이스 스스로 내리는 실용주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조이스가 “실용주의”(pragmatism)에 관련된 첫 번째 언급은 그가 쓴 서평에 서이다. 1903년 11월 12일자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誌에 실린 프리드리히 쉴러(F. C. S. Schiller)의 『인본주의: 철학적 수상들』(*Humanism: Philosophical Essays*)에 관한 서평에서, 조이스는 쉴러가 표방하는 인본주의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류의 실용주의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쉴러의 논점을 조이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진정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논리를 개혁하고, 순수사고의 부조리(the absurdity of pure thought)를 드러내고, 형이상학을 위한 윤리적 기반을 형성하고, 현실적 유용성(practical usefulness)을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고, 절대적 존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다시 말하면, 실용주의는 상식이다. (CW 135)

위에서 인용한 스타니슬라우스의 증언에서 그가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조이스 자신이 내린 실용주의의 정의에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조이스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철학적 영향을 고려할 때, 분명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대한 개혁적 힘으로서의 실용주의의 위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조이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고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특히 어느 특정한 사고나 사상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의 회의주의적 태도는 오히려 다양성에 대한 지향으로 표출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생각은 스티븐이 예술적 이론에 몰입하고 있는 “프로티우

스(Proteus)”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샌디마운트(Sandymount) 해변을 거닐며, 스티븐은 감각(sensation)과 인식(perception)에 대해서 명상에 빠진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스티븐은 단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신비주의자 제이콥 보엠(Jacob Boehme)의 이론을 통해서 보고 있다. 티어해리스 티어해리스(Theoharis Constantine Theoharis)가 지적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단적인 신비주의 철학의 신비로운 삼단논법 속에서(in the esoteric syllogisms of heretical mystics)”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다(Theoharis 18). 더구나 스티븐은 색에 대한 감각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했을까하는데 생각에 이른다: “어떻게? 그의 머리를 물체에 부딪쳐서, 분명히”(U 3.5-6). 이 생각은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이 버클리주교(Bishop Berkeley)의 이상주의를 논박한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Gifford 45), 아리스토텔레스를 회화함으로써 그의 형이상학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한 서평에서 조이스는 실용주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지지자인 쉘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비실체적 형태들(ghostly forms)”이라고 공박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율리시즈』에서 스티븐 디덜러스가 신비주의자들의 본거지를 “Yogibogeybox chamber”(U 9.279-86)라고 그들의 비실체성을 공격하는 부분은 영지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부정적 태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조이스는 쉘러의 논의가 “이성적 심리(rational psychology)”보다는 “감정적 심리(emotional psychology)”에 출발점을 둠으로써, 그가 일원이었던 심리연구회같은 소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러나 쉘러의 접근법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실용주의의 요체들을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음은 놀랍다. 따라서 우리는 조이스의 쉘러의 저서에 대한 비판과 그의 실용주의에 대한 인식을 분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조이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그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지지자로 등식화하는 것은 스티븐을 조이스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 스티븐이 나타내는 조이스 문학의 일면은 분명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이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의 영향은 스티븐에게서 찾아 볼 수 있을 뿐, 불륨에게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불륨이 나타내는 조이스 문학의 다른 일면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혹은 철학적 근거는 무엇일까? 조이스가 내린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용주의는 “상식”과 동일시되며, 특히 순수사조의 부조리를 드러낸다거나, 절대적 존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면에서 실용주의는 단순한 철학 사조가 아니라, 흐름의 예술적 성향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원용적 접근인 것 같지만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미국의 대표적 실용주의 이론가인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의 실용주의를 조이스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로티의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에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틀에서 이해해야 하는 조이스의 작품의 특성 때문이다. 사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은 바로 실용주의적 세계관에 있다고 봐야한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장-프랑소와즈 료파르(Jean-François Lyotard)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바로 “언어 파편들의 실용학(a pragmatics of language particles)”이다.<sup>2)</sup> 포스트모더니즘과 마찬가지로 로티의 실용주의는 존 듀이(John Dewey)의 철학을 잇는 단순한 철학적 사조라기 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라고 보아야 한다. 우선 로티는 “언어 이전의 의식(prelinguistic consciousness)”을 부인하며, 언어의 재현(representation)적 기능을 부정한다(Rorty 21). 이러한 출발점은 언어와 사물의 대응관계가 더 이상 재현의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이므로,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인의 자아나 사회 공동체도 필연적 대응관계보다는 우연성(contingency)의 영역에서 면제될 수 없게 된다. 우연성이 강조되는 세계관은 절대적인 질서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순수사조의 불합리성이나 절대적 권위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조이스 문학의 저항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료파르가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요체는 바로 “거대담론에 대한 불신(incredulity toward metanarratives)”이며, 동시에 “총체성에 대한 전쟁(a war on totality)”이다(Lyotard xxiv 82).

조이스는 그가 지향하는 예술가의 저항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2) 료파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조건』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는 (구조주의나 체계이론같은) 뉴튼적인 인류학의 영역보다는 언어 파편의 실용학에 속한다(Thus the society of the future falls less within the province of a Newtonian anthropology (such as structuralism or systems theory) than a pragmatics of language particles.” Jean-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p.xxiv.

예술가로서 모든 국가에 저항한다. 물론 그것[국가의 존재]을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내가 다루는 모든 것에서 그것의 제도들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중심집약적이고, 인간은 탈중심적이다. 여기서 영원한 투쟁이 일어난다(As an artist I am against every state. Of course I must recognize it, since indeed in all my dealings I come into contact with its institutions. The state is concentric, man is eccentric. Thence arises an eternal struggle)"(Borach 71). 여기서 주의해야 할 용어들이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동심원적”이라고 번역되는 “concentric”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권력의 방향성과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이한”이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eccentric”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eccentric”도 “탈중심적”을 의미하는 “ex-centric”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은 매우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조이스가 의도하는 “eccentric”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 다른 두 사람의 언급을 살펴보고자 한다. H. G. 웰즈(H. G. Wells)가 자신과 조이스를 비교한 언급을 먼저 살펴보자. 조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조이스]의 교육은 카톨릭적이며, 아일랜드적이고, 선동적(insurrectionary)이고, 나의 교육은 과학적이고, 건설적이며, 아마도, 영국적이었다. 나의 마음의 틀은 거대한 화합(unifying)과 집중화(concentrating)의 과정이 가능한 세계이며. . . 당신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현실과 상당한 반대에 있는 가치의 체계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당신의 정신세계는 모순들이 가득한 끔찍한 체계에 몰입되어 있다 (L I, 274-75).

웰즈의 편견은 결국 조이스가 아일랜드 작가로서 안고 있는 필연적인 운명과 저항정신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영국적인 통합과 집중화의 체계는 결국 아일랜드 작가인 조이스가 가야 할 방향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웰즈가 인식한 선동성은 바로 식민지하의 아일랜드 작가가 겪어야 할 운명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이스에게 있어서, 중심집약적인 힘에 대한 저항은 “eccentric”한 것일 수밖에 없다. 리처드 엘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eccentric”이 얼마나 아일랜드의 민족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한층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이함(eccentricities)을 갖고 태어난다. 기이함이 아일랜드에서

의 평균이다”(Ellmann 361). 조이스가 이러한 기이함을 작품에서 형상화한 인물은 스티븐 디들러스라기 보다는 레오폴드 블룸이라고 볼 수 있다. “방황하는 앤거스”(wandering Aengus)인 스티븐과 더불어, 전설적인 “방랑의 유대인(the Wandering Jew)”의 역사적 무게를 타고 난 블룸의 사회적, 종교적 위상은 아일랜드에선 필연적으로 “유목인(nomad)”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이스는 “단원적 결집성(monadic concentration)”보다는 “이산적 다원성(nomadic plurality)”을 형상화한 블룸을 통해서 그의 미학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율리시즈』가 다양한 문체의 ‘백과사전’인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또한 백과사전적 지식의 수용도 상식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스태니슬라우스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면, 조이스가 단순히 실용주의를 수용하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조이스가 “무용한 지식(useless knowledge)” 때문에 이태리 백과사전을 선호했다는 언급은 다분히 조이스의 반어적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무용한 지식처럼 보이는 백과사전적 지식의 수용은 『율리시즈』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싸이클롭스”장에서 아일랜드의 국가적 영웅의 계보를 나열하는 장면이나, “이타카”장의 백과사전식 정보의 열거에서 잘 나타난다. 이는 “단원적 결집성”의 원칙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총체성”에 대한 전쟁인 것이다. 『율리시즈』 전체에서 나타나는 조이스의 문체적 포용성도 이러한 백과사전사상과 결부된 실용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하나의 플롯을 지향하는 기존의 소설적 전개로부터 이탈하려는 탈중심적 작가 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제임스 캐힐런은 이것을 “전통적인 영국소설의 통일성의 전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Cahalan 114). 다른 말로 하면, 조이스의 예술은 아일랜드의 식민지적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로버트 스푸가 “역사는 『율리시즈』에서 하나의 주제이상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특별한 정도로 이 소설의 미학적 산출의 조건이다(History is more than a theme in *Ulysses*; it is to an exceptional degree a condition of the novel's aesthetic production)”라고 한 말은 조이스에게 있어서 역사인식과 예술관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Spoo xxiv). 이러한 연관성은 조이스가 실용주의에 관한 두 번째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 II

조이스가 실용주의의 개념을 사용한 예는 『피네간의 경야』를 위한 노트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서평과 이 노트 사이의 시간적 간극만큼이나 실용주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태도가 역사인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앤드류 트라잎(Andrew Treip)은 조이스가 이 노트에서 역사를 “철학적(philosophic)” 그리고 “실용적(pragmatic)”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Treip 648). 그러나 그는 이러한 조이스의 역사인식을 헤겔의 역사발전론의 틀에 맞추어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실용적/철학적/역사”라는 표현은 헤겔의 역사론에서 단순히 다양한 사실적 정확성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단순한 철학이전의 역사들과 사건 자체를 넘어 그들의 철학적 중용성, 즉 자연의 장막을 뛰어넘는 시대정신의 작용에 이르는 철학적 역사의 근본적인 양극성을 반영한다 (Treip 648)

물론 19세기의 역사관을 지배했던 헤겔의 사상을 조이스가 말하는 “철학적/역사”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트라잎의 시도는 조이스의 역사인식을 헤겔의 틀에만 맞추어 재단하려는 도식적 접근으로 조이스가 “실용적 역사(pragmatic/history)”라는 표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철학적/역사”라는 개념과 대응되는 “실용적/역사(pragmatic/history)”란 무엇을 말하는가? 상반된 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이스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먼저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1902년 더블린 대학(University College, Dublin)의 한 학회에서 행한 아일랜드의 민족시인인 제임스 클래런스 땡건(James Clarence Mangan)에 관한 연설문에서 조이스는 시(poetry)로 대변되는 문학과 역사를 상반된 개념으로 대치시키고 있다.

시란 분명히 가장 환상적일 때도, 항상 기교에 대한 반란이고, 어떤 의미에서, 실재성에 대한 반란이다. 시는 현실의 시험인 단순한 직관들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 같은 것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와 대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기억의 딸들에 의해 지어낸(fabled by

the daughters of memory) 역사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혈관 맥박보다 짧은 순간마다 그 직관들을 만들어 내는 시대를 마치 육 천년에 상응하는 시기와 가치로 여기면서 저장한다. 의심 없이 그들은 시대의 연속을 주장하는 문인들이고, 역사 혹은 현실의 부정(history or denial of reality)-한 물건의 두 이름인데-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되어진다. (CW 8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를 “현실의 부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조이스의 태도이다. 역사를 “기억의 딸들에 의해 지어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네스터”장에서 반복된다: “기억의 딸들에 의해 지어낸(Fabled by the daughters of memory)”(U 2.7). 이 구절은 실제로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마지막 심판의 비전(A Vision of the Last Judgment)”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조이스는 본래의 구절을 변형시켜 적용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블레이크의 표현은 “우화 혹은 알레고리는 기억의 딸들에 의해 형성된(Fable or Allegory is Form'd by the daughters of Memory)”이었다. 다시 말해, 조이스는 역사를 하나의 알레고리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다양성을 담아 내지 못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가 의미하는 “역사”란 아마도 19세기의 진보주의적 역사주의(historicism)를 말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조이스가 의미하는 “현실”과 긴장관계에 두고 있다.

조이스에게 있어서 역사가 현실의 부정인 이유는 현실의 다양성이 역사의 목적성(teleology)이나 인과성(causality)의 틀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거부 태도라고 본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스티븐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신의 이름과 소명 의식의 언급에서도,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것임을 보여준다. 그가 읽은 리치멀 매그넬(Richmal Magnall)의 『의문들』(Questions)이나 피터 파알리(Peter Parley)의 『그리스와 로마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역사는 정복자의 이야기인 것이다 (P 53). 역사적 담론에 대한 고찰이 명백한 “네스터”장의 첫 장면에서 스티븐은 학생들에게 고대 로마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장소는 잊었습니다, 선생님. 기원전 279년입니다.

-에스쿨럼, 스티븐이 말했다, 더럽혀진 책에서 이름과 날짜를 슬쩍 보면서.

-네, 선생님.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것과 같은 또 하나의 승리와 우리는 이 루었다.

그 구절은 세상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마음의 나른한 편안함. 시체로 덮인

별판의 위 언덕에서 장군이 그의 장교들에게 창에 기대서 말했다. 어떤 장군  
이 어떤 장교들에게. 그들은 경청한다. (U 2.11-17)

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기록은 승리자의 기록이며, 역사적 사건을 일반화시키는 역사의 기술에 스티븐은 주목하고 있다. 장군의 연설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지만, 수많은 병사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제외된다. 장군(general)의 연설로 기억되는 역사기록의 과정은 역사를 일반화(generalization) 혹은 보편화함으로써 배제되는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조이스는 편지에서 영웅주의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나는 확신하건대, 영웅주의의 전체적인 구조는 형편없는 거짓말이고, 항상 그랬다. 그리고 예술과 철학을 포함해서 모든 것의 동인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L ii, 81). 조이스가 페레로(Ferrero)의 역사관--역사란 개인의 작은 노력에 의해 변화한다고 믿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면(Spoo 32), 스티븐의 공감은 장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병사들에게 있는 것이다. 역사(history)의 기술에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storie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조이스는 “역사”의 일반화 과정에서 배제된 가능성의 영역의 다른 측면에 대해 스티븐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네스터”장에서 스티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가능성에 대해 명상한다.

피러스가 야고스에서 노파의 손에 쓰러지지 않았다면, 혹은 줄리어스 씨저가 칼에 찔려 암살되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생각에서 지워 버릴 수가 없군. 시간은 그것들을 낙인을 찍어, 그들은 족쇄가 채워져 그들에게 물수된 무한한 가능성의 방에 묵게 되겠지. 그러나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일어날 일이 단지 가능한 것인가? 찌는거야, 바람을 찌는 사람. (U 2.48-53)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의 영역에서 배제된 가능성의 영역을 스티븐은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이후로 스티븐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씨저가 예언자의 말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있을 수도 있는 일: 가능성의 가능한 것일 가능성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아킬레스가 여인들 사이에 태어났을 때 그가 사용한 이름(what Caesar would have lived to do

had he believed the soothsayer: what might have been: possibilities of the possible as possible: things not known: what name Achielles bore when he lived among women)"(U 9.348-51). 스티븐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역사적 "가능성"은 역사에 대한 다른 접근을 불러온다. 피러스의 몰락에 관한 일화는 역사에 존재하는 우연성의 문제이다. 피러스가 적장의 어머니에 의해 벽돌을 맞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설은 역사의 인과성을 주장하는 역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우연한 사건이 역사의 인과관계를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역사적 가정인 씨저의 암살은 아일랜드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배신의 주제를 상기시켜준다. "유메이어스"장에서도 칼끝을 보면서 스티븐이 로마의 역사를 연상하는 것도 1882년 피닉스 공원 암살 사건을 역사의 동일 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난 칼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나에게 로마 역사를 상기시켜 주거든요(I can't look at the point of it. It reminds me of Roman history)"(U 16.816). 아킬레스에 대한 언급은 역사의 세부사항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사유의 영역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현실성에서 배제된 가능성은 문학의 영역에 닳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재미있는 유령이야기(ghost story)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묵묵히 밀턴의 "리시더스(Lycidas)"라는 시의 암송을 요구한다. 앞선 언급했던 역사와 문학의 대립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을 찢다는 것은 페넬로피(Penelope)의 베를 찢아처럼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며, 그 최종적인 결말이 항상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야기의 영역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이스에게 있어서 역사는 현실의 부정인 것이다. "역사"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조이스의 줄타기 곡예 같은 접근은 결코 조이스가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러한 태도는 조이스가 객관적 진실에 대한 "연역(inference)" 보다는 변화되는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재서술(redescription)"의 방식을 선호하는 "아이러니스트(ironist)"임을 보여주는 것이다(Rorty 78). 따라서 조이스가 의미하는 "실용적" 역사란 철학적 역사를 끊임없이 해체하는 역동적 갈등관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이스가 의도하는 "철학적(philosophic) 역사"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말하는 역사의 형이상학적 특성과 일치하는 면이 많이 있다. 그의 정의를 통해 조이스의 철학적 역사에 대한 개념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역사 개념의 형이상학적 특성은 단선성(linearity)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의 전 체계와도 연결되어 있다. 목적성(teleology), 종말론(eschatology), 고양되고 내면화되는 의미의 축적, 어떤 형태의 전통성, 어떤 개념의 지속성, 진리 같은 것들. (Derrida 57)

데리다는 지속적으로 “형이상학적” 개념의 역사, 즉 “현존의 직선적 연속(the linear consecution of presence)”으로서의 역사를 거부하고, “간극적이고 변별화된 역사들(intervallic, differentiated histories)”을 선호한다(Derrida, 58). 다시 말하면, 데리다는 단선적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되는 역사보다, 틈새에 존재하는 파편화된 역사들의 공존을 선호한다. 역사의 일반화를 통해서 배제될 수 있는 소수나 억압받는 사람들의 역사들을 포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데리다가 형이상학적 역사의 특성으로 언급한 목적성(teleology)나 종말론(eschatology) 같은 개념을 반영하는 역사관의 예를 스티븐이 일하는 학교의 디지(Deasy) 교장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의 위대한 목표--신의 현현--를 향해서 움직인다(All human history moves toward one great goal, the manifestation of God)”(U 2.380-81). 이러한 역사관은 모든 역사의 구체적 사실들을 하나의 틀로 보편화는 행위이며, 조이스가 이러한 역사적 목적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회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온 부흥사 알렉산더 다우이(Alexander J. Dowey)의 광고지(throwaway)는 역사의 종말론을 천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종말론은 “써시”장에서 보여지듯 그의 종말론의 사실성은 상실하였고, 단순히 상업화된 모습만을 보여준다. 성가 “호산나”의 가사가 고장난 축음기에서 예루살렘이 “Whorusalaminyourhighhohhh”(U 15.2211)으로 왜곡되는 순간은 그의 종말론의 타락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조이스는 “역사”의 다양한 담론들에 대해 그 형이상학적 고착성에 대한 의문을 기하학적 은유로 제기한다. 데리다는 단선성(linearity)으로 이해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의 역사에 대해 경계의 말을 잊지 않는다.

우리가 조심해야하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역사의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이것은 역사를 의미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 . . 스스로 발달하고, 스스로를 생산하고, 스스로를 성취하는 의미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 단선적으로 그렇게 한다: 일직선이건 순환적 선이건 간에. (Derrida 56).

데리다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흔히 단선성을 단순히 직선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 힐리스 밀러(J. Hillis Miller)도 유사한 비유로 소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선의 이미지는 항상 하나의 외적인 조직원리에 의해 하나의 지속적인 통합 구조의 규준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만족되거나 직선이거나—전체의 선을 어떤 아르케(arché), 목적(telos), 혹은 근거(ground)를 가지고 하나로 지탱하고, 법칙을 부여하며, 발전적 확대를 통제한다. 기원, 목표, 혹은 공간: 이 세 가지는 로고스의 집결 움직임 안에 수용된다 (Miller 18).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단선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획일화된 통합성에 있으며, 직선뿐만 아니라 순환적 선도 해당됨을 지적한다. 역사적 단선성을 보여주는 디지의 역사관은 그가 존경하는 존 블랙우드 경(Sir John Blackwood)의 모토로 삼고 있는 “직선의 길(*Per vias rectas*)”(U 2.283)에서 잘 나타난다.

디지 교장의 역사론에 대한 스티븐의 조롱섞인 대답은 하키 경기의 골(goal)이 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거리의 외침(A shout in the street)”(U 2.386). 사실 “거리의 외침”은 환유적(metonymic) 변환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도사의 도래를 알리는 광고지를 뿌리는 사람의 외침도 이러한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지의 단선적 역사발전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역사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역사의 환유적 변환이 위에서 데리다가 언급한 “간극적이고, 변별화된 역사들”과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실용주의적” 역사관 결국 역사의 다양한 담론의 수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리의 외침”의 변형된 형태가 “스킬라와 채러디즈”장에서 나타난다: “신: 거리의 외침: 매우 소요적인(God: noise in the street: very peripatetic)”(U 9.85-86). 플라톤적인 이데아론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엔텔레키(entelechy)를 선호한 조이스는 “거리의 외침”이나 “거리의 소음”으로 변형되는 역사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외침은 분명히 “소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틀로 정형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정형화를 의미하는 단선성(linearity)의 문제는 조이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흔히 조이스가 단선적(unilinear) 역사관보다 비코(Vico)의 순환적 역사관을 선호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리시즈』에서는 단 한

번 비코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도 거리이름으로: “비코길, 달키(Vico road, Dalkey)”(U 2.25). 조이스는 비코의 역사순환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나는 그의[비코의] 원형들을 격자로 이용한다. . . . 나는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 이상으로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점진적으로 내 자신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강요된다”(Ellmann 554). 『피네간의 경야』에서의 비코의 순환적 역사관은 사실상 『율리시즈』에서의 호머의 『오디세이』의 구조적 틀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율리시즈』에서 순환이나 반복의 주제는 신문의 특종의 제목같은 “퍼넬의 귀환(Return of Parnell)”(U 16.1298)으로 나타나거나, 립 반 윈클(Rip van Winkle)의 귀환 같은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역사의 순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스티븐의 역사에 대한 정의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역사는 우리가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악몽이야(History . . . is a nightmare from which I am trying to awake)”(U 2.377). 조이스나 스티븐에게 있어서 역사는 “살아 있는 아들을 위협하려고 돌아오는 끔찍한 어머니의 몸, 같은 것의 의미 없고, 무서운 반복을 나타내는 강박적인 유령(the uncanny maternal body returning to menace the surviving son, a compulsive ghost that represents a meaningless, horrific repetition of the same)”으로 보고 있다(Spool 18). 이러한 역사적 순환성도 조이스의 실용적 역사인식에선 하나의 역사 담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역사적 담론은 어느 하나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경쟁관계에 있으며, 현실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조이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철학이나 역사관이 아니라, 역사의 구체적 현실이다. 어떤 역사적 체계보다는 현재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 현실들이 조이스가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특히 블랙우드 경이 영국과의 통합을 지지했다는 말과 아일랜드의 통합을 정당화하는 통합주의자(Unionist)의 논리는 같은 맥락에서 단선적 역사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귀결은 결국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헤인즈가 영국의 식민통치를 막연한 “역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후자의 경우는 역사적 현실을 역사적 귀결로 이해함으로써,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란 결국 승리자의 역사이지, 억압받는 민족의 역사는 아닌 것이다. 디지 교장이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아일랜드의 역사를 언급할 때, 영광된 역사의 이면에 감춰진 잔인성을 성찰한다: “영광스럽고, 경건하고, 불멸의 기

억. 카톨릭 교도들의 시체가 매달려 있던 영광의 아르마의 다이몬드 지부. 목이 선, 복면을 하고, 무장을 한 영국 왕에 충성을 맹세한 지주들. 검은 복인과 진정한 푸른 성경파. 까까머리들은 쓰러지다(Glorious, pious and immortal memory. The lodge of Diamond in Armagh the splendid behung with corpses of papishes. Hoarse, masked and armed, the planters' covenant. The black north and true blue bible. Croppies lie down)"(U 2.273-76). 윌리엄 3세를 칭송하는 말과 함께 1790년대 신교와 구교간의 살상의 역사를 통해 아일랜드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들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은 단순한 이념적 갈등이라기보다는 실제적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대립관계임을 조이스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역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계층은 바로 앵글로-아이리쉬계 신교도들이다. 스티븐은 앵글로-아이리쉬(Anglo-Irish)의 역사관을 궁정에서 일하는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이해한다: "온유한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몰두하고, 홀대받는 주인의 궁정에서 있는 어릿광대(A jester at the court of his master, indulged and disesteemed, winning a clement master's praise)"(U 2.43-45). 스티븐의 사유는 그들의 역사의식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왜 그런 역할을 택했을까? 전적으로 부드러운 포옹을 위해서는 아냐. 그들에게도 역사는 너무 자주 들은 다른 얘기와 같은 것이고, 그들의 땅도 전당포인 셈이지(Why had they chosen all that part? Not wholly for the smooth caress. For them too history was a tale like any other too often heard, their land a pawnshop)"(U 2.45-47). 앵글로-아이리쉬들도 영국의 식민통치의 희생자라는 스티븐의 공감은 조이스가 다루는 역사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 그렇듯이 복잡한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더 그리피스(Arthur Griffith)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동조에도 불구하고, 조이스는 선편정책의 핵심인 캐톨릭에 근거를 둔 순수 아일랜드인에 대한 생각의 부조리함을 펄넬과 같은 민족주의자도 신교인(Protestant)임을 지적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역사에 대한 개념은 아이러 네이델(Ira Nadel)이 지적하듯이, 유대인의 시간개념이나 역사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Nadel 46). 블룸의 존재 자체가 유대인의 역사의 무게를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매릴린 레이지보움(Marilyn Reizbaum)이 강조한 소설의 두 개의 중요한 주제--타자로서의 유대인과 역사의 역할--는 블룸이라는 존재에서 만난다. 따라서 블룸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조이스는 탈무드를 인용함으로써 아일랜드 민족과 유대민족사이의 상관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탈무드의 어딘가에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올리브와 같다: 우리가 짓눌릴 때, 우리가 이파리의 무게에 견디지 못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다.’”(Borach 71). 아일랜드의 식민지의 억압 상황을 유대인에 유추하면서, 두 민족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 스스로 정의하면서, “『올리시즈』는 두 민족--이스라엘과 아일랜드--의 서사시이다”(L I, 146)라고 한 것처럼 불륨의 존재는 유대민족과 아일랜드인의 유대성을 보여 주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노예의 등이 어떻게 채찍을 잊겠는가?”(CW, 168)라는 강한 수사적 의문도 제기한 것을 볼 때, 조이스에게 있어서는 역사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 실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역사가 반영된 것은 스티븐의 “플럼의 비유(the Parable of Plums)”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일랜드의 민족 지도자 찰스 스튜어트 퍼넬(Charles Stewart Parnell)을 모세(Moses)와 동일시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자치정책의 지연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아일랜드인과 유대인들의 “정복에 대한 저항과 조국의 건설에 대한 열망”에서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다 (Davidson 44).

불륨의 존재는 『올리시즈』에서 아일랜드 민족과의 연계성을 암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문제도 함께 생각하게 한다. 빅토리아조의 역사관을 대변하는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논의는 『올리시즈』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된다. “텔레마커스”장에서 벅 멀리건(Buck Mulligan)이 제안한 아일랜드의 “헬레니즘화(Hellenize)”는 당시 영국의 반유대적 분위기와 연관된다. 아놀드가 주장했던 헬레니즘적 가치의 부활은 그 이면에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이 배어 있고, 그런 우려는 영국인 헤인즈에게서 잘 나타난다. “텔레마커스”장에서 헤인즈의 반유대주의적 발언은 당시 영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위기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난 영국인이지. . . 나는 영국인임을 느껴. 난 나의 조국이 독일계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국가적 문제라는 것이 유감스러워”(U 1.666-68). 헤인즈의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디지 교장의 견해와 일치한다.

내 말을 주목해요, 디덜러스 선생. 그[디지 교장]가 말했다. 영국은 유대인의 손아귀에 들어 있지. 가장 높은 자리야: 영국의 제정, 출판. 그리고 그들은 한 국가의 쇠퇴의 표상이지.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 국가의 생명력을 고갈 시키지. 나는 요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 우리가 여기 확실히 서 있는 동안, 유대인 상인들은 이미 파파의 일을 하고 있지. 옛 영국은 죽어가고 있어. (U 2.346-51)

스티븐은 유대인의 상업의 장악에 대한 편견을 상인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반유대주의를 희석하려고 한다: “상인이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이죠, 그렇지요?(A merchant . . . is one who buys cheap and sells dear, jew or gentile, is he not?)”(U 2.359-60). 하지만 디지 교장의 방에 있는 스튜어트 왕조시대의 동전들이나 열 두 사도가 새겨진 순가락들에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영국의 물질주의를 디지 교장은 인정한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이아고(Iago)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가 돈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셰익스피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스킬라와 채러디즈”장에서 셰익스피어는 물질적 가치에 민감한 인물로 스티븐은 강조한다: “그는 가문의 문장과 스트랫포드의 장원과 아일랜드 땅에 집을 소유한 부유한 시골의 신사였고, 자본가 주주였으며, 흥행사였고, 십일조를 내는 농부였지(He was a rich country gentleman . . . with a coat of arms and landed estate at Stratford and a house in Ireland yard, a capitalist shareholder, a bill promoter, a tithefarmer)”(U 9.710-12). 디지가 강조하는 영국인들의 경제적 자립성은 결국 제국주의적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빈센트 첵(Vincent Cheng)은 헤인즈의 아버지가 할라파 뿌리를 아프리카의 줄루족에게 팔아먹은 것(U 1.156-57)을 통해서 헤인즈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Cheng 152).

반유대주의적 태도는 디지 교장의 농담에서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교를 떠나가는 스티븐을 다시 불러서 하는 그의 마지막 말은 반유대주의적인 태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디덜러스씨!

나를 따라오면서. 더 이상 편지는 없길 바라는데.

-잠깐만.

-네, 선생님. 스티븐은 말했다, 정문 쪽으로 돌면서.

디지 교장은 멈추었고, 숨을 거칠게 쉬거나 삼키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가 말했다, 아일랜드가 유대인을 박해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의 영예를 갖고 있지. 그거 아냐? 아니. 그리고 왜인지 아냐?

그는 밝은 햇살에 눈살을 엄숙히 찌푸렸다.

-왜 입니까? 선생님. 스티븐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유대인을 아예 들여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지, 라고 디지 교장이 엄숙히 말했다. (U 2.432-42)

닐 데이빗슨(Neil Davidson)의 지적처럼, 1904년 1월에 리머릭(Limerick)에서 있었던 유대인 상인에 대한 투석 사건의 언급이 『올리시즈』에 전혀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의구심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Davidson 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클롭스”장에서의 시민(The Citizen)에 의해 행해지는 불륜에 대한 “박해”는 이러한 사건의 회화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이스의 폭력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듯, 돌이 비스켓 깡통으로 대치되긴 했지만, 시민의 불륜에 대한 박해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편협한 “민족”이라는 기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텔레마커스”장에서 스티븐은 옥스퍼드에서 친구 클라이브 켐프토퍼(Clive Kempthorpe)를 방문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매튜 아놀드의 얼굴을 닮은 귀머거리 정원사를 떠올린다. 이어서 당시의 지식인 사이에서 만연된 사상운동을 연상한다.

열려있는 창문에서 나오는 괴성들이 저녁 무렵 사각형의 학교 뜰을 놀라게 했지. 앞치마에 매튜 아놀드의 얼굴을 한 귀먹은 정원사가 춤추는 듯한 풀들기를 비좁게 바라보며, 암울한 잔디밭에서 잔디 깎는 기계를 밀고 있다.

우리자신들에게 . . . 새로운 세속주의 . . . 세상의 중심(omphalos). (U 1.172-76)

셰이무스 딘(Seamus Deane)은 여기서 귀먹은 정원사의 무관심처럼, 아놀드의 영국 자유주의(liberalism)는 결국 영국의 제국주의 통치의 폭력성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고 본다(Deane 20). 잔디 깎는 기계에 무참히 짓밟혀 가는 풀들처럼, 아일랜드가 처한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무관심을 보여주

고 있다. 더구나 “써시”장에서 아놀드의 모습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불확실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시아메즈 쌍둥이, 술 취한 필립과 멀쩡한 필립,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 . . . 두 사람 다 매튜 아놀드의 얼굴 가면을 쓴 채”(U 15.2512-14). 필립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필립이 술에 취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유래에서 기인한 것이다(Gifford 496). 아놀드의 논의는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후반기의 역사적 인식과 일치한다고 볼 때, 이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의 반유태주의(antisemitism)의 거대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스적 이름을 가진 예술가 스티븐 디덜러스와 상업성에 물든 유대인 레오폴드 블룸의 공존은 아놀드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논의를 상기시켜 준다. 조이스가 해체하고자 하는 아놀드의 논의는 그 두 가치의 통합에 있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중심(omphalos)은 그리스어로 배꼽을 의미하며, 기원과도 연관성이 있다. 기원의 문제는 다시 헤브라이즘의 기원인 에덴으로 이어진다: “여러분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나요? 당신의 중심을 응시하세요. 킨치 여기야. 나를 에덴마울에 연결시켜 줘. 알레프, 알파: 영, 영, 일(Will you be as Gods? Gaze in your *omphalos*. Kinch here. Put me on to Edenville. Aleph, alpha: nought, nought, one)”(U 3.38-40). 하나의 기원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융합되어 나타남으로써 기원 자체를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써시”장에서 린치의 모자가 하는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태그리스인은 그리스유태인이다. 극단은 통한다(Jewgreek is greekjew. Extremes meet)”(U 15.2097-98).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통합은 조이스가 지향하는 바가 아님은 “써시”장에서 블룸의 환상적인 개혁연설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비난받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의 역사와 유대인의 역사를 연결 지어 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칼립소”장에서 들루가즈(Dlugaz)의 푸줏간에서 본 광고지는 바로 유대인의 민족주의운동인 시오니즘(Zionism)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적 시각을 읽을 수 있다. “티베리아즈 호수가의 키네레스에 있는 시범농장(the model farm at Kinnereth on the lakeshore of Tiberias)”(U 4.154-55)으로 상징되는 유대인의 민족주의 운동이 상업적 효용성의 가치의 척도에서 비추어 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조이스가 트리에스티에서 사귀었던 유대인 친구 중 하나인 모세 들루가즈(Moses Dlugaz)가 열정적인 시오니즘 지지자였던 사실을 상기할 때, 블룸

의 태도는 애매한 것이다. 블룸의 실용적 기준은 시오니즘의 인위적 시도를 거부한다. 이는 당시 민족주의 운동이 표방하는 인위적인 고대 아일랜드의 가치의 부활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적 시각과도 일치한다. 사실 “싸이클롭스”에서의 “민족”에 대한 시민(the Citizen)의 편협함은 바로 20세기의 전환기의 아일랜드 사회에 패배한 민족주의 운동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블룸의 사회적, 민족적 위상의 애매함이 “민족”에 대한 순수한 사고의 부조리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본다.

조이스가 말하는 “실용적 역사”란 “철학적 역사”로 대변되는 역사의 형이상학적 확정에 대항하는 이산적 다양성(nomadic plurality)의 원리에 의해서 현실을 접근하는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 단선적 역사관이나 순환적 역사관 모두 조이스가 담아 내려는 “현실”과 거리가 멀기에 역사를 현실의 부정으로 이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실용적 역사란 이러한 현실의 다양성을 담아 내려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떠한 틀에도 얽매이지 않은 블룸의 존재 자체가 그의 문학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관은 블룸의 삶 속에 담겨져 거대담론으로의 결정화를 거부한다. 그의 탈중심적 사고는 조이스가 이해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 III

『율리시즈』의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이스의 실용주의적 태도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조이스가 내린 “실용주의는 곧 상식”이라는 정의는 변하지 않은 공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블룸의 사고의 유연성과 특이성은 바로 상식적 사고이면서도 동시에 “상식성(communsensicality)”을 끊임없이 의문시한다. 예를 들면, “네스터”장에서 스티븐이 디지 교장의 구제역에 관한 원고를 어깨너머로 쳐다보면서 눈에 들어온 구절--“상식의 명령들(the dictates of common sense)”(*U* 2.294-95)--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볼 때 결코 상식이 긍정적으로만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논의한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이해가 물론 “상식”이라는 개념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이스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결

국 상식성도 의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아마도 조이스도 로티가 상식을 “사려부족과 통속성에 대한 자기 기만적 변명(a self-deceptive apologia for thoughtlessness and vulgarity)”이라고 보는 인식을 공유했을 법하다(Rorty, 150). 로티는 미국의 소설가 나보콥(Nabokov)의 “문학과 상식의 예술(The Art of Literature and Common Sense)”에서 하이데거(Heidegger)와 나보콥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론을 논의하면서, “독특하고 개성적인 아이러니(unique and idiosyncratic irony)”(Ibid.)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나보콥이 조이스와 디킨즈가 예술가이지만, 오웰(Orwell)과 만(Mann)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조이스에게 상식은 실용주의의 근간이지만, 이것도 끊임없이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이스에게 있어서 실용주의는 단순한 철학사조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로티에 따르면 상식의 반대 개념은 바로 아이러니이다(Rorty 74). 로버트 스푸는 비코의 용어--“sensus communis”--가 실용적 생각과 공동체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지적하면서, “공통적 역사와 문화적 운명감(a common history and sense of cultural destiny)”을 공유하게 있는 말임을 강조한다(Spoo 119). 블룸의 존재는 “신펜(Sinn Fein)”정책이 표방하는 순수한 아일랜드인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탈중심적 유목인(eccentric nomad)”으로서, 오히려 상식 “밖”에 존재하며 상식의 틀을 깨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블룸은 상식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상식을 의문시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아이러니의 태도는 나보콥이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독특하고 개성적인 아이러니”로 나타난다고 볼 때, 블룸은 탈중심적(eccentric)인 존재이다. 이러한 면은 블룸의 예술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의사(擬似)과학적이고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블룸의 사유방식은 고전주의적 예술의 현실 재현(representation)에 대한 의구심으로 나타난다. 아일랜드 국립 박물관(the Irish National Museum)에서 블룸이 보여준 그리스 여신상이 생식기를 갖고 있는지 대한 호기심은 단순한 관음증(voyeurism)적인 기이함이 아니라, 예술의 재현과 자기검열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블룸의 목적은 그리스의 여신상의 몸이 해부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호기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한다. 블룸의 이러한 태도는 그리스 여신상으로 대변되는 고전주의적 미의 가치가 현실적인 태도를 갖고있는

유태인의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예술 전반에 걸친 표현의 자유와 그에 대한 금기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엠 키드 부커(M. Keith Booker)는 이러한 블룸의 태도를 그의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마음(the practical modern mind)”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Booker 25). 헬레니즘적 가치는 “이음새가 없는 완전함(a seamless whole)”을 이상으로 여긴다면, 블룸이 대표하는 실용주의적 가치는 사실상 “구멍(holes)” 투성이인 것이다. 블룸이 보고 싶어하는 여성의 몸에 있어서의 “세 개의 구멍(Three holes)”(*U* 11.1089)은 해부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술의 표현에 관한 심각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그들은 없어. 한번도 본 적은 없어. 오늘을 봐야겠다. 감시원이 안 보는 사이에. 뭐가 떨어뜨린 것을 줍는 듯 하며. 그녀가 갖고 있는지(They have no. Never looked. I'll look today. Keeper won't see. Bend down let something drop. See if she)”(*U* 8.930-32). 블룸이 박물관의 예술품이 여성의 생식기관을 재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우연히도 벅 멀리건(Buck Mulligan)이 그의 이런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His pale Galilean eyes were upon her mesial groove. Venus Kallipyge.”(*U* 9.615-16). 여기서 멀리건은 블룸의 기이한 행동을 유태인적인 도착으로 이해하는 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블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과 발상은 당시의 에드워드 왕 시대의 성적 수줍음(*prudence*)의 위선을 파헤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술표현의 검열 또는 자기검열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조이스의 실용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효용성과 윤리성이다. 전자는 다분히 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개인적 양심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둘 다 유태인인 블룸이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선 언급했던 것처럼 아놀드의 헬레니즘으로의 복귀는 언뜻 헤브라이즘과의 균형을 강조하긴 해도, 사실 그의 태도는 다분히 헬레니즘으로 치우쳐 있다고 본다. 디지 교장이나 헤인즈의 반유태주의 이면에 유태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우려가 숨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루이벤 도드(Reuben J. Dodd)의 일화는 고리대금업으로 대변되는 유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만연된 편견을 다루고 있다. 사실 도드가 유태인이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음에도, 더블린의 사람들은 도드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인 검리(Gumley)에게 인색했던 것으로 유태인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인식하는 문화적 기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가 블룸을 선택한 것도 그의 직업인 광고중

개인(ad canvasser)의 특성상 모든 사물을 경제적 효용성의 관점에서 실용주의적 태도와 결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광고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이며, 다른 담론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 푸줏간에서 사용되는 종이가 시오니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광고 전단지라는 점은 조이스 특유의 현실 인식이라고 본다. 종교와 정치도 광고담론의 도발적 수용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광고는 종교적 담론이나 정치적 선전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치선전이나 종교적 설교도 넓은 의미에서의 광고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다.

#### IV

지금까지 우리는 조이스가 차용한 호머의 회랍 신화의 유형이 토마스 엘리엇(T. S. Eliot)이 “신화적 방식(the mythical method)”이라고 칭송한 것처럼 『율리시즈』에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왔다. 엘리엇은 신화적 방법을 “현재 역사인 무의함과 무정부상태의 거대한 파노라마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고, 통제하고, 질서화하는 방법(a way of controlling, of ordering, of giving a shape and a significance of the immense panorama of futility and anarchy which is contemporary history)”이라고 보고 있다(Eliot 177). 하지만 이러한 엘리엇의 관점은 사실상 조이스 문학의 핵심을 빗겨간 견해이다. 조이스 문학의 패러독스를 지적하면서,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율리시즈』의 문제는 무질서의 형태(the form of disorder)를 찾는 일이다”라고 했다(Eco 44). 과연 우리는 “Blephen”과 “Stoom”중에서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과연 스티븐과 블룸의 통합은 가능한가? 아일랜드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영국과의 합병(the Act of Union, 1800)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자란 조이스에게 통합이란 결코 바람직한 역사적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문학에서 구현될 이상도 아니다. 그러므로 스티븐과 블룸은 결코 하나로 통합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두 면이 항상 갈등관계에 있음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이스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그 효용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조이스의 실용주의에 대한 관심은 철학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의 문학적 실천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조이스의 관심은 내러티브(narrative)에 있다고 볼 때, 조이스가 실용주의를 적용한 형태에서는 결코 통합된 단일 형태를 찾기 힘들다고 본다. “싸이렌”장 이후 후반부의 문체의 변화는 문체의 효용성에 근거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각 장의 특성에 맞는 형식을 변화시키는 이면에는 실용주의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대표적으로 “이타카”장의 백과사전적인 정보의 나열은 사실상 현대의 정보의 범람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의 틀로 수많은 정보를 수용할 수 없고, 점점 이산적 다양성(nomadic plurality)의 원리에 위해 역동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식적 수용이며, 동시에 상식에 대한 의심이다. 이는 상식이 안고 있는 변화의 성질에 근거를 둔다. 조이스 문학이 보여주는 끊임없는 변화는 한정된 틀을 거부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조이스를 실용주의적 아이러니스트(ironist)로 보는 것은 그의 작품의 이해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고 믿는다.

(연세대)

### 인용 문헌

- Booker, M. Keith. *Joyce, Bakhtin, and the Literary Tradi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 Borach, Georges. “Conversations with James Joyce.” *Portraits of the Artist in Exile: Recollections of James Joyce by Europeans*. Ed. Willard Potts. San Dieg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9, pp. 69-72.
- Brivic, Sheldon. *Joyce the Creator*.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 Cahalan, James M. “Teaching *Ulysses* as an Irish Novel.” *Éire-Ireland* 25.2 (Summer 1990): 109-117.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Davidson, Neil R. *James Joyce, Ulysses, and the Construction of Jewish*

- Identity: Culture, Biography, the 'Jew' in Modernist Europe*.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Deane, Seamus. "'Masked with Matthew Arnold's Face': Joyce and Liberalism." *James Joyce: The Centennial Symposium*. Eds. Morris Beja, Philip Herring, Maurice Harmon, and David Norris.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6, pp. 9-20.
- Derrida, Jacques. *Positions*. Trans.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Eliot, T. S. "'Ulysses,' Order, and Myth." *Selected Prose of T. S. Eliot*. Ed. Frank Kermode. London: Faber and Faber, 1975. 175-78.
- Gifford, Don, and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s.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New York: Penguin Books, 1977.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Gabler. New York: Random House, 1986.
- Lyotard, Jean-François. *The Postmodern Condi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 Miller, J. Hillis. *Ariadne's Thread: Story Lin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Nadel, Ira B. *Joyce and the Jews: Culture and Texts*. Gainesville: UP of Florida, 1996.
- Reizbaum, Marilyn. *James Joyce's Judaic Oth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 Rorty, Richard.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Cambridge: Cambridge UP, 1989.
- Spoof, Robert. *James Joyce and the Language of History: Dedalus's Nightma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Theoharis, Theoharis Constantine. *Joyce's Ulysses: An Anatomy of the Soul*.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Treip, Andrew. "Lost Histereve: Vichian Soundings and Reverberations in the Genesis of *Finnegans Wake* II,4." *JJQ* 32 (Spring/Summer 1995): 641-57.

## Abstract

## Joyce and Pragmatism

Kiheon Nam

It seems unimaginable to connect the name of James Joyce with pragmatism, but its relevancy has been already discussed by a few critics. Almost all discussions of Joyce's aesthetic theory have focused on the Stephen Dedalus of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ut Joyce's aesthetic machine consists of two disparate axles--Stephen's and Bloom's. So we have to approach *Ulysses* in terms of Bloom's aesthetic, which is related to Hebraic values. In a book review published in *Daily Express*, Joyce understands pragmatism as this: "Pragmatism is really a very considerable thing. It reforms logic, it shows the absurdity of pure thought, it establishes an ethical basis for metaphysic, makes practical usefulness the criterion of truth, and pensions off the Absolute once and for all. In other words, pragmatism is common-sense" (*CW*, 135). In addition, Joyce distinguishes between "philosophic" and "pragmatic" history in a note to *Finnegans Wake*.

By combining these conceptions related to pragmatism, I will show that Bloom's aesthetic is based on Joyce's understanding of pragmatism. In order to understand Joyce's distinction, we must first of all look at his concept of "history," which is identified as "denial of reality" in a speech on Irish poet James Clarence Mangan delivered in University College, Dublin. Joyce's "pragmatic" history is in opposition to what Derrida calls "metaphysical concept of history." Derrida prefers "intervallic, differentiated histories" rather than history as "the linear consecution of presence." In this respect, the best example of "metaphysical concept of history" can be found in Mr. Deasy's perspective on history: "All human history moves toward a great goal: manifestations of God." Throughout *Ulysses*, Joyce brings out a lot of different discourses on

history and, by doing so, never allows no single historical perspective to be valorized. In other words, Joyce's "pragmatic" history implies a consistent, ongoing struggle against the danger of universalizing a history, especially the victor's. Joyce as a colonial writer denies any historical discourse that may endorse the British imperialist ideology. Rather than compromising the values of Hellenism and Hebraism asserted by Matthew Arnold, Joyce puts Stephen's and Bloom's aesthetics in an eternal struggle, thereby producing stories, not History.

Joyce's protagonist, Leopold Bloom, is an eccentric person, a personification of Joyce's concept of pragmatism. His eccentricity rejects any consolidating authority and incessantly interrogates traditional notions of art. In the National Museum scene, Bloom tries to make sure whether a statue of a Greek goddess has "three holes." The statue of a Greek goddess is regarded as representing of the Hellenistic value of beauty as a seamless whole. Bloom is searching for "holes" in a seamless totality. Bloom's "eccentric" behavior and thinking reveals "the absurdity of pure thought," and "pensions off the Absolute." As ad canvasser, Bloom interrogates everything in terms of pragmatic validity, thus leveling the hierarchy of values.

Joyce's pragmatism is permeated in his attitude toward history and Bloom personifies its values. It is why *Ulysses* is an encyclopedia of not only narrative styles, but also historical perspectives. It defies any unifying approach and its final meaning is persistently displaced.